

우리의 **국외 사역**

큰은혜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박경복 목사 (일본)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MKCC 선교센터 

이일환/이진숙 선교사 (미얀마)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GENESIS

JOSUE

LUIS

ESTEFANI

NANCY

ROBERTO

YEFERSON

CAMILA

JENNSY

LIA

ORIANA

EMELY

GAEL

OSCAR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제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순복음 파소 교회)

솔라노 지역과 파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리는 두 지교회

솔라노 | 주일 예배: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파소 | 주일 예배: 오전 10시 반 장소: 3402 Oak St, Paso Robles, CA 93446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교육관

MISSION STATEMENT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삼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	육 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교육관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 임 목 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 육 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Sam Kim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제 5호 34권		Vol. 5 No.34	8.23.2026	
여는 기도			김태아 전도사	
Opening Prayer			Taeah Kim	
경배와 찬양			다같이	
Worship and Praise			Together	
대표 기도			박소려 집사	
Representative Prayer			Soryu Park	
말	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담임목사
Sermon		사도행전 5장 1~11절		Serior Pastor
합심 기도			다같이	
United Prayer			Together	
봉헌 및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Offering				Together
광 고			담임목사	
Announcements			Serior Pastor	
* 찬	양	삼중 축복		다같이
Blessing Song				Together
축 도			담임목사	
Benediction			Serior Pastor	

기도 순서

	8/23	8/30	9/6(연합)	9/13	9/20(솔라노)
1부	이중록	김보라	-	임성호	-
2부	박소려	김아론	민들레	진영아	-

1. 식탁 교제

예배 후 본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 예배 안내

다음주 주일(8/30)에는 서울대치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이신
한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3. 가정 교회

일시: 8월 28일 (금) 저녁 7시 30분
장소: 각 목장 리더 가정

4. 하반기 악기 클래스

일시: 8월 29일 (토) ~ 11월 28일 (토) 오전 11~12시
장소: 교육관
문의는 임성호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

일시: 8월 31일 (월) ~ 10월 9일 (토) 저녁 7시 30분
장소: 본당 및 교육관

6. 찬양팀 수련회

일시: 9월 6일 (주일) ~ 9월 7일 (월)
장소: 순복음 파소 교회 (3402 Oak St, Paso Robles, 93446)

7. 가정 예배지

가정교회로 인해 이번 주는 가정 예배지가 없습니다.

8월 생일

5일 김승연 전도사
18일 김하온 어린이
29일 김보라 전도사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열왕기상 10:14-29	열왕기상 11:1-13	열왕기상 11:14-25	열왕기상 11:26-33	열왕기상 11:34-43
Grace Kim	Grace Kim	이중록	이중록	김태아

8.23.2026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감탄합니다.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도 역시 세상 속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과 거대한 힘 앞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 또한
세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은 ‘능력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거룩의 깊이’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성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할 때, 비로소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인간의 유약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맞닿을 때, 비로소 진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자체에는 아무런 힘도, 가치도 없습니다. 쉽게 깨지고 불품없는 것이 질그릇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길 때 질그릇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저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고급 그릇이라 할지라도 안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삶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정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21절의 말씀은 이 진리를 더욱 명확히 공고히 해줍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손에 선택받는 기준은 그릇의 재질(금, 은)이 아닙니다. 깨끗함의 여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그릇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질그릇 같더라도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낸 사람을 통해 움직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걸어 들어갈 때를 묵상해 보십시오. 두겹고 무거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것은 화려한 말솜씨나 리더십, 혹은 탁월한 행정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성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역의 현장은 늘 이처럼 엄위한 영적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왜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 스펙이 모자라서, 혹은 은사가 없어서 사역이 안 된다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꾸꾸만 세상적인 능력을 구하고, 세련된 프로그램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질그릇으로 깨어날 때, 내 무능함은 가려지고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목회 현장 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